

의존 명사 ‘줄’ 구성의 인지 양상에 따른 통사 구조와 의미

도미향*

-차 례-

1. 서론
2. ‘관형형+줄(을) 알다/모르다’ 구성의 인식 ‘새로 읽’
3. ‘관형형+줄(로) 알다’ 구성의 인식 양태 ‘이미 읽’(기지가정)
4. 결론

[국문초록]

‘알다’는 인간의 인지 인식을 표상하는 인지동사로 넓은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줄’ 관형절과 만나 다양한 의미를 표현한다. 본고에서는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와 ‘관형형+ 줄(로) 알다’ 두 가지 구성으로 나누고 각각의 구성이 한국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의미를 밝혀보았다. 먼저,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는 ‘알다’가 표현하는 인지의 의미와 조사 ‘을’의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인식이 조합되어 ‘새로 앓과 앓’을 표상한다. 그리고 ‘알다’의 반의어인 ‘모르다’도 ‘관형형+ 줄(을)’구와 결합하여 양태용언, 관형절 내용의 강조와 단순 부정, 능력 부정의 화자중심 양태용언 1류의 의미도 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새로 발견한 것은 선행연구에서 ‘관형형+ 줄(로) 알다’의 의미로 언급된 반사실성에 관한 것이다. 반사실성은 이 구성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알다’로 표현하는 ‘믿음’의 의미와 조사 ‘로’의 부분적이고 단면적인 인식과 과거시제의 조합으로 유발된 함축적인 의미이고 이 구성이 표현하는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인식을 표상하는 ‘뒤늦은 깨달음’의 인식양태를 나타낸다는 점을 밝혔다.

주제어 : 줄, 알다, 모르다, 새로 앓, 이미 앓, 인지, 믿음, 반사실성, 인식양태

1. 서론

한국어의 의존 명사는 의존 명사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여 선행하는 관형절과 함께 구 구성을 이루어 문장에 쓰인다. ‘관형형+ 줄(을/로) 알다/모르다’ 구성도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는데 본고에서는 이 구성이 표현하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기술하려 한다.

이러한 기술을 위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의존 명사 ‘줄’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의존 명사 ‘줄’의 의미와 역사적 변천 과정에 집중한 연구들이다.¹⁾ 둘째, ‘줄’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다룬 연구들이다.²⁾ 그 밖의 연구로는 의존 명사 ‘줄’에 대해 계량적인 분석을 한 연구들이 있다.³⁾

기존의 이러한 많은 연구들은 의존 명사 ‘줄’ 자체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관형형+ 줄(을/로) 알다/모르다’ 구성에 관한 관심은 비교적 많지 않았다. 여기서는 ‘관형형+ 줄(을/로) 알다/모르다’ 구성 자체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줄 알다/모르다’의 대립 관계 양상과 사실 인식 측면을 다룬 오경숙(2009)에서는, ‘줄’ 구성을 ‘줄 알다/모르다1’, ‘줄 알다/모르다2’로 나누고 ‘줄 알다/모르다1’을 능력이나 방법이 ‘있다, 없다’를 의미하며 ‘줄 알다/모르다2’는 반사실성과 사실성을 의미 한다고 했다. 특히, ‘줄 알다/모르다2’에 대해서 ‘줄 알다’의 일차적 의미는 반사실성이고 이차적인 의미가 사실성이며 ‘줄 모르다’는 사실성의 의미만 나타낸다고 하였다. 반사실성의 개념을 도입해 ‘줄’ 구성을 설명한 시도는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명확한 개념의 정의 없이 사실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용어를 사용했으며 많은 차이를 가지는 ‘줄 알다/모르다2’를 ‘반사실성의

1) 의존 명사 ‘줄’의 의미와 역사적 변천 과정에 집중한 연구로는 이주행(1983), 홍사만(2003a), 정연주(2016), 정혜선(2018), 이지영(2018) 등이 있다.

2) 이러한 연구로는 우형식(1995), 안정아(2005), 김진희·김선혜(2012), 오민석(2015) 등이 있다.

3) 이러한 연구로는 이정훈(2006), 최정도(2007) 등이 있다.

줄 알다'와 '사실성의 줄 알다'로 단순히 설명했다. 본고는 오경숙(2009)에서 '줄 알다/모르다'를 '알다'의 의미에 따라 두 개의 구 구성으로 명확히 제시하며 선행 연구에서 간과한 동사 '알다'의 의미가 구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더하여 이 구성이 표현하는 반사실성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기술할 것이다.

또 다른 '줄' 구성의 주목할 만한 연구인 오민석(2015)에서는 '줄' 구성을 '줄1 구성'과 '줄2 구성'으로 나누고 '줄1 구성'으로는 '방법, 능력'이라고 하며 오경숙(2009)과 같은 관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줄2 구성'을 두 가지로 전형적 구성, 비전형적 구성으로 나누었다. 전형적 구성에서 'Vending 줄을 알다/모르다'는 내포문 명제에 대한 인지 여부라고 했으며 비전형적 구성에서 'Vending 줄로 알았다'는 내포문 명제 진위 여부, 'Vending 줄을 모르다'는 '부정 상황의 지속'이라고 했다. 이러한 오민석의 분석은 '관형사형 줄 알다/모르다' 구성에 관한 보다 정교한 기술이지만 오경숙과 마찬가지로 '반사실성'이란 용어를 정확한 개념 정의 없이 사용했고 구 구성에 대한 현상만 기술했을 뿐 구성 속에서 '알다'의 의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또한 다양한 문장 유형 명령문이나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줄' 구성의 차이도 주목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 간과한 이러한 점들을 보다 명확히 기술하기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인지동사 '알다'의 '인지(새로 앎과 앎)'의 의미에서 의존 명사구성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의 통사 구조와 의미에 대해 논의를 전개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조명한 '알다'의 '인지(새로 앎과 앎)'의 의미와 '믿음(이미 앎)'의 의미에서 드러나는 통사적, 의미적 차이점을 비교하며 '관형형+ 줄(로) 알다' 구성의 통사 구조와 이 구성이 표상하는 의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마지막 4장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내용을 정리하며 '관형형+ 줄(로) 알다'가 문장에서 구현하는 진정한 의미를 기술하며 마무리 할 것이다.

2. ‘관형형+줄(을) 알다/모르다’ 구성의 인지 ‘새로 앎’⁴⁾

‘관형형+ 줄(을/로) 알다/모르다’는 두 가지 구성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이고, 두 번째는 ‘관형형+ 줄(로) 알다’이다. 이 두 구성은 인지동사의 특징이 반영되어 화자의 정보 인식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진다.⁵⁾ 본 장에서는 ‘줄’ 의존 명사구에서 인지동사 ‘알다’ ‘인지(앎)’의 의미가 ‘줄’ 구성에 통사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수의적으로 사용되는 조사 ‘을’이 구성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확인해 볼 것이다.

인지동사는 대체로 타동사이면서 내적 행동성을 표현하는 동사이다. 장경희(1985)에서는 ‘알다’의 핵심 의미를 ‘정보를 가지다’로 파악했다. 그러나 정보는 화자에게 ‘인지’의 단계인 ‘새로 앎’을 나타낼 수도 있고 정보가 내면화된 ‘믿음’의 단계인 ‘이미 앎’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인지동사를 우형식(1998:142)에서는 인지동사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크게 1류, 2류, 3류로 나누었는데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는 이러한 기준으로 3류(소극적)에 속한다. 우형식에서 소극적으로 분류한 이유는 새로운 정보가 아직 화자에게는 내면화 되지 않은 ‘앎’이기 때문이다.⁶⁾ 일반적으로 정보가 주어졌을 때 화자는 인지하고 알게

4) 박재연(2004:48)에서는 인식 양태는 ‘정보 내용’으로서의 명제를 대상으로 하는 양태이므로 구체적으로는 ‘정보의 성격에 관한 화/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나타내는 양태의 하위 부류’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다.

5) 오민석(2015:96)에서 상위문의 주어 S1이 명시되면 ‘줄2’ 구성으로 상위문의 주어 S1이 명시되지 않고 관형사형 ‘-을’만 취하면 ‘줄1’ 구성으로 나누었는데 그러한 기준에 의하면 이 논문에서는 ‘줄2’의 구성만을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와 ‘관형형+ 줄(로) 알다’로 나누었다.

오민석(2015:97)에서 ‘줄1’과 ‘줄2’를 아래와 같이 나누어 놓았다.

‘줄1’ 구성	‘줄2’ 구성
ending = -을	ending = -을, -은, -는, -던
S1 = S2	S1 {=, ≠} S2
S1 = ∅	S2 {=, ≠} ∅
V1은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	V1은 동사, 형용사, 이다
S1은 행위주 논항	S1의 논항 자격 제한 없음
V1과 ‘-었-’의 결합 불가	V1과 ‘-었-’의 결합 가능

된다. 즉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 구성에서 ‘관형형+ 줄(을)’의 내용은 화자에게 아직 내면화 되지 않은 ‘정보나 지식’의 인지이다. 이러한 구성에서 ‘알다/모르다’는 인지동사 ‘알다’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N을/를 알다’를 취하며 목적어인 N은 ‘정보’와 ‘지식’에 대한 화자의 인지를 나타낸다.⁷⁾ 이 때 사용하는 조사 ‘을’은 사건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화자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구성에서 ‘알다’는 어휘적 부정어로 ‘모르다’를 취할 수 있고 조사 ‘을’을 수의적으로 사용하여 관형절 내용이 ‘알다, 모르다’의 목적어 논항 자리를 이룬다.

- (1) 날씨가 춥다.
- (2) 나는 날씨가 춥다는 것을 알아.
- (3) *나는 날씨가 춥다는 줄을 알아.

예문 (1)은 청자에게 ‘날씨가 춥다’라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문 (2)의 ‘것’ 관형절은 후행하여 ‘알다’가 쓰였지만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관형절+ 줄(을) 알다/모르다’가 쓰인 문장은 비문을 이룬다. 왜 같은 명제 내용의 관형절을 가진 구성에서 의존 명사 구성 ‘것’은 정문을 이루고 ‘관형절+ 줄(을) 알다/모르다’의 ‘줄’은 비문을 이룰까? (2) ‘것’ 구성의 관형절의 내용은 사건이나 사태 자체를 표상하지만 ‘관형절+ 줄(을) 알다/모르다’ 구성에서 관형절의 내용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화자가 인지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줄’ 관형절의 내용은 화자의 인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실 사건의 정보 명제는 ‘관형절+ 줄(을) 알다/모르다’로 표현할 수 없고 화자의 인지에 의한 인

6) 박재연(2019:6)에서는 ‘새로 앎’, ‘이미 앎’과 관련된 인식론적 범주를 ‘내면화’라고 부르며, 언어유형론 논의에서 의미 속성의 하나로 다루어지는 ‘mirative’는 ‘새로 앎(unassimilated inform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으며 한국어에서 내면화 속성은 본질적으로 화자의 감정 표현과 관련된 영역이 아니며 어떤 정보가 화자의 지식 체계에 자리 잡은 정도를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어는 ‘지각’에 의한 정보를 표시하는 직접 지식 표지에서 ‘새로 앎’ 의미가 나타나는 드문 예라고 했다. 본고에서도 박재연(2019)의 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새로 앎’, ‘이미 앎’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7) 김정아(2021:329)에서 ‘알다’의 가장 기본적인 구문 구조는 목적어를 취하는 ‘N을/를 알다’라고 했다.

식을 나타내는 명제에만 쓸 수 있으며 정보가 아니라 화자의 인지 행위를 나타낸다.

(4) 아름다움을 보고 즐길 줄(도) 모르는 당신보다는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손에 있는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마, 밤이면 밤마다 1회)

(5) 떡볶이 네가 만두와 붙어먹을 줄 (꿈에도 나는) 몰랐네. (드라마, 글로리아 3회)

(6) 타이밍 맞춰 빠질 줄도 알고 눈치는 있네. (드라마, 공주가 돌아왔다 8회)

(7) 나 여기 올 줄 어떻게 알았대? (드라마, 단팥빵 12회)

예문 (4)는 ‘관형형+ 줄(을) 모르다’에 조사 ‘도’가 수의적으로 결합한 예문이고 (5)는 ‘줄’과 ‘모르다’ 사이에 ‘꿈에도 나는’이 들어간 예문이다. 예문 (6, 7)은 ‘줄’에 후행하여 동사 ‘알다’가 쓰인 예문이다. 오민석(2015:98)에서 ‘줄2’의 전형적인 구성으로 내포문의 명제에 대한 인지 여부를 뜻한다고 했다. 이 구성에서는 화자의 정보에 대한 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명제는 화자의 인식을 표현한다.⁸⁾ (5, 6, 7)의 ‘알’은 화자에게는 ‘새로 알’이다. 그러나 예문 (4)가 단순히 ‘관형절의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다’ ‘새로 알’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아름다움을 보고 즐길 줄도 모른다’는 단순히 정보의 인지 차원이 아니라. 능력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8) 저 그럼 볼 줄 모르거든요. (드라마, 비밀 남녀 16회)

(9) 그 생활이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은 재화를 이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 하겠지...(드라마, 상도 45회)

예문 (8, 9)는 예문 (4)와 같이 ‘관형절의 정보를 인지 못했다’가 아니라 ‘향유하거나 누릴 줄 모르다’이다. 그렇다고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방법, 능력’의 의미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주어가 ‘그림을 보거나,

8) 장경희(1985:64)에서는 우리가 외부의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사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외부에 발생한 사태이고 또 하나는 지각하는 인간의 행위이다. 라고 했다.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는 외부에 발생한 사태가 아니라 화자의 지각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재화를 이용하는 능력이 없다는 의미로도 또는 그러한 정보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로도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에서 ‘알다’는 화자에게 확실한 정보를 아는 것이다. 이 때 조사 ‘을’은 ‘줄’ 관형절의 내용을 전면적이고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통로로 순전한 ‘앓’ 자체의 상태를 표현한다. 그래서 관형절의 내용은 화자에게는 신뢰도가 높은 정보이다. 정보를 인지한 상태이면 ‘알다’로, 정보를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모르다’로 나타낼 수 있다. ‘모르다’가 ‘정보에 대한 인지가 없다’를 나타낸다면 아래의 예문의 ‘모르다’는 조금 다른 것 같다.

(10) 내 손주 놈이 부자 너 찾으러 갈 줄 모른다. (드라마, 줄리엣의 남자 2회)

→ *내 손주 놈이 부자 너 찾으러 갈 줄을 모른다.

(11) 설마 갈 줄 몰라 눈물 나는 유진인데 (드라마, 연인 13회)

→ *설마 갈 줄을 몰라 눈물 나는 유진인데

(12) 그 자리에서 무슨 해꼬지를 당할 줄 몰라 말 못하겠더라. (드라마, 인생 화보 201회) → 해꼬지를 당할 수도 있다

김지은(1998:182)에서 양태용언 ‘모르다’는 ‘명제가 가리키는 상황의 실현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라고 했다.⁹⁾ 예문 (10, 11)도 ‘관형절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어가 ‘갈 수 있다’라는 실현 가능한 상황을 배제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양태용언의 의미에서도 ‘모르다’가 가진 ‘정보에 대한 인지 부족’의 의미를 토대로 한다. 화자는 사태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해 발화한 것이다. ‘관형형+ 줄(을) 알다/모

9) 김지은(1998:167-168)에서 ‘-ㄴ 줄 모르다’ 구문에서 ‘모르다’는 선행용언이 가리키는 행위의 수행과 관련된 주어의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때에도 ‘모르다’는 여전히 서술 기능을 하고 있으며 통사적으로도 양태용언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일반용언에 포함시켜야 하며 양태용언 ‘모르다’라는 용어는 ‘(으)르지, -(으)ㄴ지, -는지’ 형태 뒤에 결합하는 화자중심 양태용언 ‘모르다’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예문 (10, 11, 12)처럼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 구성에서도 양태용언으로써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르다’ 구성에서 ‘모르다’가 ‘양태용언’의 의미일 때는 화자 자신의 부족한 인지를 ‘모르다’로 청자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관형절의 내용이 화자에게 자리 잡힌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사태나 사건’ 즉 ‘새로 앓’을 표현하고 있다.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 구성에서 동사 ‘모르다’는 ‘알다’의 어휘적 반의어인 부정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양태용언’의 의미도 지니며 화자의 인식 속에 이미 자리 잡은 정보가 아닌 ‘새로 앓’의 의미도 함께 표상하고 있다. 이 구성은 관형사형어미 ‘-을’만을 취하고 조사 ‘을’의 게재도 허용하지 않는다.¹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태용언’의 의미를 가진 ‘관형형(-을)+ 줄 모르다’ 구성은 통사 구성이라고 보다는 문법 구적 특성을 띄고 있는 것 같다.

(13) 너나 동백이 니들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 141회)

(14) 니 덕분에 다림질 안 해서 얼마나 편한 줄 몰라. (드라마, 꼬끼리 50회)

(15) 우리 실장님 얼마나 멋있는 줄 몰라. (드라마, 옥탑 방 고양이 5회)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 구의 ‘어쩔 줄 모르다’는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예문 (13, 14, 15)에서처럼 ‘너무 다행이다, 편하다, 멋있다’를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 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후행 용언 ‘모르다’를 사용하여 관형절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우리는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 구성 안에서 ‘양태용언’ ‘모르다’가 표현하는 ‘실현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를 가지지 않음’과 관형절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을 보았다. 여기서는 ‘모르다’의 기본적인 ‘어휘 부정’ 의미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관형형+ 줄(을) 모르다’ 구성은 ‘관형형+ 줄(을) 알다’ 구성의 부정 표현이다.¹¹⁾ ‘관형

10) 김지은(1998:90)에서도 ‘모르다’가 일반용언으로 쓰일 때는 목적격 조사 ‘을/를’이 쓰일 수 있지만 양태용언 구문에서는 ‘을/를’이 결합하면 양태용언 구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형+ 줄(로) 알다’는 정보나 지식이 화자의 인지 체계에 완전히 자리 잡은 ‘이미 앎’의 상태이기 때문에 알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모르다’로 부정을 표현할 수 없지만 ‘정보의 소유 유무’인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에서는 가능하다. 또한 동사 ‘모르다’이외의 ‘못’에 의한 장형 부정과 단형 부정 ‘안’에 의한 장형 부정과 단형 부정도 가능하다.

(16) 옥망이란 하늘 높고 무서운 줄 알지 못하므로. (천규석, 이 땅덩이와 밤상, 창작과 비평사, 1993)

(17) 지혜인 줄 못 알아보고 꾸벅 인사하며...¹²⁾ (드라마, 꼭지 1-24회)

(18) 가. 나는 영화를 안다.

나. *나는 영화를 알지 않는다.

나.' *나는 영화를 안 안다.

다. 나는 영화를 알지 못한다.

다.' *나는 영화를 못 안다. 이지영(2005:11)

예문 (16)에서는 의존 명사 ‘줄’에 후행하여 ‘알다’의 반의어 ‘모르다’가 아닌 ‘못’이 들어간 장형 부정문 ‘알지 못하다’가 쓰였고 예문 (17)에서도 ‘줄’에 후행하여 단형 부정 ‘못 알다’로 ‘알다’의 부정을 나타냈다. 이지영(2005:112)에서는 ‘NP를 알-’구문이 부정문으로 나타날 때 ‘못’에 의한 장형 부정문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 구성에서는 ‘모르다’ 뿐만 아니라 ‘못’ 장형 부정과 단형 부정도 가능하다. 동사와 결합하는 ‘못’ 부정은 일반적으로 능력의 부정을 나타내지만 아래의 예문에서 인지동사 ‘보다, 계산하다, 생각하다’는 ‘관형형+ 줄(을)’과 결합하여 ‘불능’이 아니라 ‘불급’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¹³⁾ 인지동사는 인간의 인식을 표상하는 동사이므로 인식의

11) 황순희(2012:379)에서는 ‘지식’과 달리 ‘알다’의 핵심적 의미는 [+ 정보 소유]로 파악될 수 있고 반면 ‘알다’의 상보적 반의어인 ‘모르다’는 [-정보 소유]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12) 동사 ‘알다’는 ‘못’ 단형 부정이 불가능하지만 ‘알아보다’에서는 가능하다.

13) 이지영(2004:177)에서 형용사와 ‘못’이 결합할 때 ‘못’이 항상 서술어인 형용사 뒤에 있어야 하는 것은 ‘못’에 의해 그 관계가 드러나는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

정도를 ‘불능’으로 나타낸다기보다는 ‘불급’으로 ‘충분한 인지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19) 그러나 빨간 불인 줄 미처 못 본 것 같다. (이창동, 영화, 밀양 2007)

→ 그러나 빨간 불인 줄 미처 보지 못 한 것 같다.

(20) 이런 식으로 얽히게 될 줄 계산 못했어. (드라마, 불새 8회 2004)

→ 이런 식으로 얽히게 될 줄 계산 하지 못했어.

(21) 지현-아냐 후후/웬일이야 전화할 줄 꿈에도 생각 안했어 애.(드라마, 불꽃 11-20회)

→ 지현-아냐 후후/웬일이야 전화할 줄 꿈에도 생각 하지 않았어 애.

예문 (19)는 인지동사 ‘보다’로 ‘빨간 불을 보지 못했다’ ‘빨간 불에 대한 인지가 없다’란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 (20, 21)은 ‘정보의 인지가 없다’를 ‘모르다’이외의 다른 표현들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알다’ 이외의 용언으로 구성된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 구성의 용언 ‘보다, 계산하다, 생각하다’는 ‘안, 못’ ‘장형, 단형’ 부정이 모두 가능하다.

(22) 그가 가까이했던 많은 학자와 문인들의 안부를 묻노라고 해가 이미 기우는 줄(도) 알고 있었다. (서정주, 미당 자서전, 민음사, 1994)

→ 그가 가까이했던 많은 학자와 문인들의 안부를 묻노라고 해가 이미 기우는 줄(도) 몰랐다.

(23)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선뜻 팔리게 될 줄(은) 뜻밖이었습니다. (권정생 외3인, 뜰배가 보고온 달나라, 창작과 비평사, 1977)

→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선뜻 팔리게 될 줄(은) 몰랐다.

또한 위 예문 (22, 23)는 상위문의 용언 ‘있다, 뜻밖이다’를 사용하여 ‘줄’ ‘관형절의 내용의 인지가 없다’를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예문 (22)

에 서술어인 형용사의 의미가 내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같은 논문에서 ‘못’이 동사와 결합할 때는 ‘능력’ 부정, 형용사와 결합할 때는 ‘불급’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며 ‘불급’을 나타내는 ‘못’ 부정은 장형 부정만 가능하다. 라고 했다.

는 ‘알고 있던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쓰였고 예문 (23)은 주어의 ‘예측이 어긋나다’ ‘그러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모두 ‘모르다’로 바꾸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 구는 관형절에 대한 인지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상위문 동사에 부정 표현 또는 ‘모르다, 있다, 뜻밖이다’로 부정을 표현할 수 있다.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에서의 부정은 화자가 ‘줄’ 관형사절에 대한 무지각의 상태를 표상한다.¹⁴⁾

김진희·김선혜(2012:109)에서 ‘지속강조’, 오민석(2015:106)에서 ‘V+ ending 줄을 모르다’의 비전형적 구성 ‘否定 상황의 지속’으로 이야기한 ‘관형형+ 줄(을) 모르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¹⁵⁾

- (24) 이놈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는 어쩌면 좋냐? (드라마, 가문의 영광 6회)
→ 인기가 식지 않는다.
- (25) 한편 아이는 울음을 그칠 줄 모르며 울어대고... (드라마, 못된 사랑 5회)
→ 그치지 않는다.
- (26) 직원들 여성이며 퇴근할 줄 모른다. (드라마, 밤이면 밤마다 4회)
→ 퇴근하지 않는다.

‘모르다’는 ‘알다’의 어휘 부정어이다. 이러한 ‘모르다’가 후행하는 ‘관형형+ 줄(을) 모르다’ 구성이 문장의 의미를 부정의 값으로 갖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단순 부정 ‘-지 않-’과 능력 부정 ‘-지 못-’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예문 (24, 25, 26)은 ‘-지 않-’의 단순 부정이며 상황이나 사태가 지속됨을 강조하고 있다.

14) 이지영(2005:119)에서는 인식의 관점에서 동사 ‘알-’을 ‘NP를 알-’, ‘NP만 알-’, ‘NP를 NP로 알-’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누고 ‘NP를 알-’, ‘NP만 알-’은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인식, ‘NP를 NP로 알-’은 부분적이고 단면적인 인식이라 했다. 또한 ‘NP를 알-’은 한계가 부여되지 않은 구문이고 인식이 인식 대상 전체에 걸쳐 있으며 이것은 ‘NP를 모르-’가 나타내는 상황과 동일하다고 했다.

15) 오민석(2015:107)에서 내포문의 명제를 부정할 때 내포문 서술어로 동사가 오면 ‘V을 줄을 모르다’, 형용사가 오면 ‘V은 줄을 모르다’라는 구성을 보인다고 했다.

- (27) 깜짝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모른다. (드라마, 돌아와요 순애씨 11회)
 → 입을 다물지 못한다.
- (28) 한방에 쓰러지는 킬러, 다시 일어설 줄 모른다. (영화, 조용한 가족)
 → 일어나지 못한다.
- (29) 한 가운데 꼭 끼어 움직일 줄 모르는 한나 일행의 차 (영화, 미녀는 괴로워) →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나 예문 (27, 28, 29)에서는 ‘-지 못-’으로 환원되는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 ‘관형형+ 줄(을) 모르다’에서 ‘모르다’는 ‘알다’의 단순 부정뿐만 아니라 ‘능력’ 부정의 의미도 표상한다. 그러나 여기서 ‘능력의 부정’은 문법구문 구성 ‘관형형(-을)+ 줄(을) 알다/모르다’ 의미의 ‘방법, 능력’과는 조금 다르다.¹⁶⁾

- (30) 나는 운전을 할 줄 안다.
 나는 운전을 할 줄 모른다.

예문 (30)은 주어의 운전하는 능력의 여부를 표현한다면 (27, 28, 29)의 예문들은 화자의 사태나 상황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문법 구문 구성에서는 상위문과 내포문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지만 구 구성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즉 표면적으로는 같은 구 구성을 가지지만 주어의 능력을 표현하는 문법 구문 구성 ‘관형형(-을)+ 줄(을) 알다/모르다’와 화자의 인식을 표현하는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 구 구성은 형태만 같고 그 의미 기능은 다르다.¹⁷⁾

앞에서 동사 ‘알다, 모르다’가 문장에 쓰여 화자의 인식 상태인 ‘앎’ 또는 ‘새로 앎’을 표상한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에 관하여 알아

16) 본고에서는 통사 구성인 ‘관형형+ 줄 알다/모르다’는 ‘구 구성’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문법 구성 ‘-을 줄 알다/모르다’는 ‘구문 구성’으로 구분하였다.

17) 김지은(1998:27-35)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화자중심 양태용언 1류, 주어중심 양태용언 1류로 분류하였는데 ‘방법, 능력’의 문법 구문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는 주어중심 양태용언 1류이고, 화자 인식의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는 화자중심 양태용언 1류이다.

‘-을’이고 ‘줄’에 후행하여 조사 ‘을’이 수의적으로 쓰일 때는 관형절의 내용이 화자의 인식 ‘새로 앎’이라서 그러한 사실을 화자가 깨닫고 ‘놀라움’을 나타내는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 구성이지만 관형형 어미가 ‘-는, -은’인 경우 ‘줄’에 후행하여 조사 ‘로’가 수의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관형형+ 줄(로) 알다’ ‘이미 앎’의 구성이다. ‘새로 앎’을 표상하는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 구성에서 관형절의 명제 내용은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화자의 인지이고 이러한 인식을 어떠한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인지 체계에 수용하는 방식을 조사 ‘을’로 표상한다. 즉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 구성은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화자의 인식 ‘새로 앎, 앎’을 청자에게 알리는 표현이다.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 구성에서 서술어 ‘알다/모르다’는 어휘적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서로가 어휘적 반의어로 기능할 수 있고 구성의 결합 정도가 느슨하여 관형절과 서술어 사이에 다른 요소의 게재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구성이 표상하는 의미는 명제를 대상으로 하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표현하기 보다는 화자의 관형절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통사구성이다.

3. ‘관형형+줄(로) 알다’ 구의 인식 양태 ‘이미 앎’(기지가정)19)

앞 장에서는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에서 ‘인식’의 의미가 구 구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다. 이 장에서는 인지동사 ‘알다’가 표상하는 판단을 거친 ‘믿음’의 의미가 ‘관형형+ 줄(로) 알다’ 구성에서 어떠한 특징으로 드러나는지 알아볼 것이다. 장경희(1985:16)에서는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다는 것은 지식에 대한 인간 개개인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와 관계 된다’고 했다. ‘양태’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 화자

19) 박재연(2004:48)에서 ‘인식 양태는 ‘정보 내용’으로서의 명제를 대상으로 하는 양태이므로 구체적으로는 ‘정보의 성격에 관한 화/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나타내는 양태의 하위 부류’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의 정신적, 심리적 태도가 문법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설명한다면 ‘알다’는 어휘 자체로 화자가 명제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데 이 장에서는 그러한 ‘알다’가 포함된 표현 ‘관형형+ 줄(로) 알다’의 구성이 실제로 어떠한 양태적 의미를 구현하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관형형+ 줄(로) 알다’는 우형식(1998)에서 분류한 1류(적극적)에 속하고 ‘알다’가 지니는 다의어적 성격을 보여준다. 우선 선행 연구에서 명명한 ‘반사실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말 이 구성이 ‘반사실성’을 표현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²⁰⁾²¹⁾

(1) 난 대질신문까지 각오하면서 끝장을 볼 줄(로) 알았어요. (드라마, 태양을 삼켜라 22회)

(2) 아이가 죽은 줄(로) 알았다고 하더군요. (드라마, 황금마차 191회)

예문 (1, 2)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관형형+ 줄(로) 알다’ 구의 반사실성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도재학(2019:196-198)에서는 과거 시제 표지와 조합되는 모든 경우가 반사실성을 함축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은 줄’은 화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혹은 통제할 수 없었던 사태에 사용되는데 이것이 ‘의외’라는 정서적 의미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위의 예문이 보여주듯 관형절의 시제가 과거이나 현재 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위문의 동사 ‘알다’가 과거일 때 보다 더

20) 도재학(2019:202)에서는 “반사실성이라는 개념은 선행연구들에서 비현실성(irreality), 비실재(unreal), 비현실화(non-actualization) 등으로 일컬어 온 일련의 속성과 관련이 있으며, 반사실성의 언어화는 양태 혹은 비현실법이라는 문법 범주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했다. 또한 같은 논문에서 한국어 단일절에서 반사실성이 표시되는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 했다.

- 가. 반사실성을 위한 전속 표지로서의 종결어미 (의미 충위)
- 나. 반사실적 조건문의 조건절(protasis)의 탈중속화 (의미 충위)
- 다. 양태(비현실법) 표지와 과거 시제 표지의 조합 (함축 충위)

21) 박재연(2004:140)에서는 ‘비사실’은 실제 세계에 지시 대상을 가지지 않는 속성이고 ‘반사실’은 실제 세계의 지시 대상과 반대되는 속성이다. 즉 ‘비사실’은 ‘반사실’보다 포괄적인 속성이라고 했다. ‘관형형+ 줄(로) 알다’는 화자의 인식 상태이지 현실 세계에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명제이기 때문에 ‘반사실’보다는 ‘비사실’이 더 적절한 것 같다. 이 논문에서는 ‘반사실’이란 용어를 도재학(2019)에서 정의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려 한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반사실성이 드러난다.

(3) 여기까지 찾아와 이리시는 건 예의가 아닌 줄로 아는 데요. (드라마, 태양의 여자 5회)

(4) 말씀 다 들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황금마차 121회)

(5) 순진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이더라고예. (드라마, 인생화보 81회)

(2)' 아이가 죽을 줄(로) 알았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죽을 줄(을) 알았다고 하더군요.

예문 (3, 4)에서 상위문의 시제가 현재를 나타낼 때 반사실성의 의미가 읽히지 않는 반면, (5)는 ‘알았-’으로 상위문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며 반사실성도 함께 표현하고 있다. 예문 (2)'은 (2) 예문에서 관형사형 어미만 바꾼 것이다. (2)'에서는 관형사형 어미가 ‘-은’이 아니라 ‘-을’이 쓰여도 여전히 관형절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반사실성이 드러난다. 관형사형 어미와 상관없이 ‘줄 알다’에 선행하는 관형절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상위문의 시제가 현재인 경우는 화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실성의 의미가 표현되지 않으며 이 구성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보다는 조사 ‘로’가 반사실성을 드러내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주목할 점은 ‘-았-’이 표상하는 과거는 사태의 발생 시점이 아니라 과거의 화자의 지각을 나타낸다.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에서는 ‘-았-’이 사태의 발생 시점과 화자의 인지 시점을 표현하지만 ‘관형형+ 줄(로) 알다’에서는 관형절의 사태가 현실에서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사태이다. 어떠한 새로운 정보를 화자가 인지하면서 내면화 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물리적 시간은 객관적이지만 화자의 의식에서 인식되는 인식시는 주관적이다.²²⁾ 이 구성 안에서 표현

22) 이재성(2001:34)에서는 하나의 사태에 대한 인식에는, 사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태 명제 외에 사태의 시간 위치도 함께 포함된다. 왜냐하면 사태 명제(또는, 사태 명제와 사태의 전개 모습)만으로 구성된 사실은 시간 위치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한 참·거짓이 바뀌므로, 그 사실에 대한 사실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현재, 과거, 미래의 인식은 우리가 시간상에 위치하고 있는 시점을 현재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했다.

하는 ‘-았-’의 시점은 과거 화자의 인지이고 이 구성 전체가 표현하는 화자의 재인식은 화자의 발화가 일어나는 현재이다. 따라서 이 구성에서 ‘-았-’이 표현하는 시점은 재인식이 이루어진 현재의 기준에서 과거 화자의 인지를 나타낸다.

(6) 학교 도서관이 일요일에 문을 닫는 줄(로) 알았어요. 오경숙(2009:149)

오경숙(2009)에서 언급한 선행절의 진리값이 거짓임을 표상하는 반사실성은 명제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을 내려놓고 시작한다. 예문 (6)은 화자의 인식일 뿐이지 현실 세계에서 도서관이 일요일에 문을 닫는지 여는지의 사실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7) 노래만 못하는 줄(로) 알았더니 균형감각도 형편없네요. (드라마, 가문의 영광 25회)

(8) 그냥 그런 줄(만) 알았지 자기가 계획한 줄은 몰랐어. (드라마, 건빵 선생과 별사탕 11회)

예문 (7, 8)은 조사 ‘로, 만’이 쓰이고 상위문의 동사도 과거로 쓰였음에도 반사실성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7)의 의미는 ‘사실은 노래를 잘한다’ (8)의 의미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가 되어야 하지만 ‘노래도 못 하고 균형감각도 형편없다,와 그러했고 자기가 계획했다’이다. 함축에 의한 의미는 예문 (7, 8)과 같이 취소 될 수도 있다. 화자의 인식을 표상하는 ‘관형형+ 줄(로) 알다’ 구성에서는 줄(로)의 화자의 인지 ‘이미 앎’과 과거 시제의 조합으로 화용론적인 함축이 발생한 것이고 이렇게 발생한 함축적인 의미를 ‘관형형+ 줄(로) 알다’의 의미로 제시 한다면 상황에 따라 이 구성의 의미가 바뀔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화자의 인식을 박재연(2019)에서는 ‘뒤늦은 깨달음’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는데,²³⁾ ‘관형형+ 줄(로) 알

23) 박재연(2019:125)에서는 ‘사건시>지각시=인식시 ‘혼적 지각’과 구별되는 ‘사건시=지각시>인식시 ‘뒤늦은 깨달음’의 의미는 한국어에서 문법적으로 유의미하게 구현되지 않는 것 같고 문맥에 의존하는 화용론적 해석에 속한다고 했으나 ‘관

다’는 청자에게 어떠한 사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인식을 표현하는 구성이다.²⁴⁾

이 구성에서 인지동사 ‘알다’는 사유 과정이 진행된 ‘판단 후 믿음’의 과정을 표현하는데 관형절의 내용이 화자의 의식에 자리 잡힌 ‘이미 읽’을 표상한다. 이러한 ‘화자의 인식’이 현실 세계의 ‘사실’과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알다’라는 동사가 표상하는 것이 ‘진실을 아는 것 일’ 필요는 없다.²⁵⁾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에서는 경험주의 심리행위의 대상이 ‘사실, 사건’의 인지 여부이지만 ‘관형형+ 줄(로) 알다’에서는 사실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 태도를 나타낸다. 관형절의 명제가 화자의 인식 ‘믿음’을 나타내는 구성에서 동사 ‘알다’는 명제에 대한 사실성이 보장되지도 않고 명제가 사실임을 전제로 하지도 않는다. 또한 ‘관형형+ 줄(로) 알다’에서 ‘줄(로)’는 ‘알다’의 부사어이고 이 때 조사 ‘로’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임을 나타내주는 수단으로 관형절의 사태가 사실임을 보장하지 않으며 인지동사 ‘알다’의 경험주인 화자가 정보를 내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된다.²⁶⁾ ‘관형형+ 줄(로) 알다’ 구성은 화자의 인지 방식을 ‘로’로 한정된 관형절의 내용과 과거시제의 조합으로 반사실성의 함축을 유발하지만 이 구성이 순전히 표상하는 의미는 화자의 인식인 ‘뒤늦은 깨달음’을 드러내는 인식양태이다. 그러므로 ‘관

형형+ 줄(로) 알았다’ 구는 한국어에서 유표적으로 ‘뒤늦은 깨달음’을 표현하는 구성인 것 같다.

- 24) 장경희(1985:78)에서는 화자의 지각행위를 알리려고 할 때에는 ‘-더-’가 결합된 문장이 쓰이고 사실 자체를 전달하려고 할 때는 ‘-더-’가 결합되지 않은 문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 쓰이는 상황이 구별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관형형+ 줄(로) 알다’도 화자의 인식 상태를 청자에게 알리는 데에 쓰인다.
- 25) 장경희(1985:16)에서는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안다는 동작은 개인적인 행동이어서 그 동작을 행하는 개인에게만 사실성이 주어지면 ‘알다’라는 표현은 가능한 것이다’라고 했다.
- 26) 우형식(1998:145-149)에서는 인지동사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미완료의 상(aspect)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분류된다. 지속적인 미완료상은 잠정적인 사태를 나타내므로, 인용절이 통합되거나 ‘-로’격 명사절이 통합된 구문에서 나타나는 판단과 평가의 의미는 이러한 잠정적 사태를 표현하는 미완료의 상적 특징이 실현된 것이다. 라고 했으며, ‘-를’격이 직접적이고 본래적인 인지내용을 나타낸다면, ‘-로’격은 이차적으로 수정된 인지의 사태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서로 본래적인 사태와 수정된 사태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했다.

형형+ 줄(로) 알다’ 구성은 ‘인식양태’를 표현하는 우언적 구성, 통사적 복합체이다.

‘관형형+ 줄(로) 알다’가 표현하는 화자의 사태에 대한 인식인 인식 양태는 시제, 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성에서 과거를 표상하는 ‘-았-’이 이 두 구성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표현하는 지 알아보려 한다.

(9) 언젠가 니 입에서 한번은 나올 줄(을) 알았다. (드라마, 90일 사랑할 시간)

(10) 채옥씨 이쁜 줄(은) 알았지만.... (드라마, 거침 없는 사랑 14회)

(11) 태주 순진한 줄(로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처세에 꽤 능한 거 같다구 너 (드라마, 케세라세라 7회)

(9)와 (10)은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의 예문이고, (11)은 ‘관형형+ 줄(로) 알다’의 예문이다. 예문에 ‘-았-’이 쓰였는데 (9, 10)의 ‘-았-’은 과거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사태를 표상하고 있으며 과거 화자가 인식한 사실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지속상’을 나타낸다. 화자는 과거 사건이나 사태가 발생한 상황시 기준으로 ‘-았-’을 사용한 반면에 (11)의 ‘-았-’은 화자의 인지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낸다.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과거의 화자의 인지가 발화시점인 현재에 잘못된 인식임을 깨닫는 ‘뒤늦은 깨달음’에서 ‘-았-’은 과거 사태에 대한 변화된 현재의 재인식을 나타낸다.²⁷⁾이 때 화자는 화제시에 의한 시제 선택으로 ‘-았-’을 사용했다.²⁸⁾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았-’은 결합하는 동사에 따라 다른 의미를 구현하는데 ‘얹과 새로 얹’의 ‘알다’에서는 ‘알다’가 지니는 ‘상태성’의 속성과 어울려 ‘지속’을 표현한다면 ‘이미 얹’을 구현하는 ‘믿음’의 ‘알다’와

27) 이재성(2001:65)에서는 동사가 가지는 상적 속성을 5가지로 분류했는데 여기서 ‘알다’는 ‘알다1’ 진행(지속성), ‘알다2’는 완료(순간성)으로 분류했다.

28) 이 두 예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8,9)가 현재에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10)은 존재 유무가 확실하지 않는 상황이다.

는 ‘단속’의 의미를 표현한다. 또한 같은 동사와 결합한 ‘-았-’의 의미가 구성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이 두 구성의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고 화자가 인지하고 인식하지만 사태 발생시의 화자의 인식과 현재 발화시의 인식은 다를 수 있다. ‘관형형+ 줄(로) 알다’ 구성은 화자의 이러한 변화된 인식을 표현한다.

(12) 은영부 [[고소하겠다는 줄로]] 알고, 괜히 오바. (드라마, 내인생의 콩깍지 8회)

(13) 너 데리러 내려왔다구 태경이가 [[내려왔다는 줄]] 알고 기대하면서 (드라마, 미남이시네요 7회)

(14) 난 처음에 영부인 대신에 이영애가 [[온다는 줄]] 알아어.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

위 예문은 인용문이 관형절의 내용으로 구성된 예문들이다.²⁹⁾ 인지는 화자가 정보를 처음 접할 때 일어나는 정신 작용이다. 이 때 정보는 오감을 통한 것 일 수도 있고 화자의 사고를 통한 믿음이 될 수도 있다. ‘관형형+ 줄(로) 알다’는 지각을 통해서 화자의 지식 체계에 자리 잡힌 ‘이미 앎’을 표상한다. 인용문이 관형절의 내용을 이룬 이러한 구성은 전언을 통해 화자가 정보를 수용하고 화자의 인식 체계에 자리 잡았지만 정보의 확실성은 보장하지 않는다.³⁰⁾ 반면에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에서는 전언이 관형절의 내용을 이룰 때 비문이 된다.

29) 장경희(1985:79)에서는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화자의 지각행위를 알리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정도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경우도 있다. 지각이란 앎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단계, 곧 정보가 획득되는 초기의 단계이다. 화자가 어떤 사실이 화자의 지각적 정보라고 언급하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하여 화자의 인식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을 의미 한다고 했다. 그러나 ‘관형형+ 줄(로) 알다’에서는 화자의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30) 장경희(1985:115)에서는 직접 체험하여 획득한 정보가 확실성이 큰 정보임이 대부분이고 증거나 매개체를 통한 정보는 확실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고 했고, 임동훈(2003:141)에서도 자신이 획득한 정보가 어떤 근거에 기반을 두느냐에 대한 언급은 간접적으로 해당 명제에 대한 믿음 정도를 표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13) 너 데리러 내려왔다구 태경이가 내려왔다는 줄(로) 알고 기대하면서 (드라마, 미남이시네요 7회)

→ *너 데리러 내려왔다구 태경이가 내려왔다는 줄(을) 알고 기대하면서

(14) 난 처음에 영부인 대신에 이영애가 온다는 줄(로) 알았어.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

→ *난 처음에 영부인 대신에 이영애가 온다는 줄(을) 알았어.

이지영(2005:115)에서는 ‘NP를 NP로 알-’구문의 인식은 부분적이고 단면적 인식이며 인식 방식에 있어서 인식 주체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인식 주체에 의해 부인 될 수 있다고 했다. ‘을’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화자의 인지 ‘새로 읽’이라면 ‘로’는 인식 과정에서 화자의 주관이 들어간 ‘이미 읽’의 단면적이고 부분적 인식이다. 이 때의 ‘로’ 명사구는 ‘관형형+ 줄(로) 알다’ 구성에서 서술어와 가깝게 실현되어 ‘아는’ 행위의 대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함이라는 속성을 강화해 준다.³¹⁾ 또한 ‘새로 읽’은 직접적이고 확실한 정보에만 쓰이는데 조사 ‘을’로 표현되는 전면적인 인식에는 전언의 내용을 표현할 수 없다. 결국 ‘로’는 주어의 사고 내용의 귀결점 즉 ‘판단, 믿음’을 나타내며 이것은 결국 ‘로’가 가지는 향격의 ‘시간, 공간’의 지향점과 연결되고 여기에 과거 시제의 조합은 관형사절의 내용이 시간의 원격성, 현재와의 거리감을 주어 관형사절의 불확실한 정보의 속성을 강화시켜준다.

위에서 ‘줄’ 관형절과 조사 ‘로’의 조합이 관형절 내용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래 예문은 구성 속에서 동사 ‘알다’의 본연의 의미까지도 바꾸는 것을 보여준다.

(15) 흥영감/아까 반지 사러 갔을 때도 엄지여사랑 제가 부너지간인 줄로 오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드라마, 열아홉순정 1-30회)

→ 부너지간인 줄로 알았다.

31) 이은섭(2016:37)에서는 ‘으로’ 조사구는 서술어 ‘보-’와 가장 가깝게 실현되어 ‘보는’ 행위의 특별한 성격, 즉 ‘지각 행위를 통해 대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함’이라는 어휘속성을 강화해 준다. 라고 했다.

(16) 기준이 물을 무서워하는 줄로 착각한 알바생까지 합세해서 억지로 구멍 조끼 입고 태우는. (드라마, 내게 거짓말을 해봐 2회)

→ 기준이 물을 무서워하는 줄로 알았다.

예문 (15, 16)은 후행 동사로 ‘오해하다, 착각하다’가 쓰였다. 그렇다면 ‘정보를 가지다’의 ‘알다’는 ‘관형형+ 줄(로) 알다’에서 ‘알다’의 본연의 의미와 다른 ‘오해하다, 착각하다, 잘못 알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부정의 어휘도 쓰이지 않은 구 구성에서 ‘관형형+ 줄(로)’와 ‘알다’가 통합하여 제 3의 의미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바는 ‘관형형+ 줄(로) 알다’에서 ‘알다’의 어휘적 의미가 퇴색되고 화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인식양태 양태소’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때 조사 ‘로’와 ‘알다’ 사이에는 ‘관형형+ 줄(을) 모르다’와는 다르게 ‘만’ 이외의 다른 요소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두 성분 사이에 강한 인접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관형형+ 줄(로) 알다’는 화자의 인식을 표상하는 문법 구문, 통합 관계 구성 또는 통사적 복합체이다.³²⁾ 이러한 증거로는 ‘관형형+ 줄(로) 알다’의 부정 표현을 들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양태 표현은 우언적 구성으로 표현되고 부정 표현을 쓸 수 없다.³³⁾

(17) 회사에서 이렇게 나올 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죠? (드라마, 내마음이 들리니 12회)

→ 회사에서 이렇게 나올 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죠?

(18) 나도 처음엔 동명 이 인인 줄로 알았어. (영화, 건축무한육각면체의 비밀)

→ *나도 처음엔 동명 이 인인 줄로 몰랐어.

*나도 처음엔 동명 이 인인 줄로 알지 못 했어.

32) 이은섭(2008:175)에서 ‘-로 삼-’ 구성은 형태 구성이 아닌 통사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가 하나의 단위와 같이 논항의 할당과 타동성을 실현시킨다는 점으로 통합 관계 구성, 통사적 복합체로 봤다.

33) 임동훈(2003:146)에서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문법화한 것이므로 주관적 양태일수록 부정의 영역(scope of negation)에 들어오지 않음이 일반적이다’ 라고 했고, 김지은(1998:70)에서도 화자중심 양태용언 1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나도 처음엔 동명 이 인인 줄로 알지 않았어.

예문 (17)은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 구성을 ‘모르다’로 부정문을 만든 예문이고 (18)은 ‘관형형+ 줄(로) 알다’ 구성을 부정문으로 만든 예문이다.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 구성은 화자의 관형절 내용의 인지 여부만을 알려 주기 때문에 부정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지만 ‘관형형+ 줄(로) 알다’ 구성은 화자의 인식 상태를 표현하는 양태 표현으로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정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열문 구성을 이룰 때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 (19) 난 너 딱지 맞을 줄 다 알고 있었으니까. (드라마, 노란 손수건 26회)
→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니가 딱지 맞을 것이다.
- (20) 그 순간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어. (드라마, 넌 어느 별에서 왔니 1회)
→ 내가 알았던 것은 그 순간이 영원할 것이다.

예문 (19)는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 구성의 예문이고 (20)은 ‘관형형+ 줄(로) 알다’ 구성의 예문이다. (19)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인지의 인식이고 관형절의 내용을 주어가 목적어로 인지하는 문장 차원의 행위라면 (20)의 인식은 화자와 명제라는 화용론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그리고 각각을 분열문으로 바꾸어 보았을 때 (19)는 문장의 진리치가 같지만 (20)의 경우 진리치가 같지 않다. (20)의 ‘관형형+ 줄(로) 알다’는 화자가 표현하는 진리치는 ‘그 순간이 영원하지 않았다’이지만 분열문에서는 ‘그 순간이 영원하다’로 진리치가 같지 않다.

- (19)' 난 너 딱지 맞을 줄 다 알고 있었으니까. (드라마, 노란 손수건 26회)
→ 너는 딱지를 맞았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 (20)' 그 순간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어. (드라마, 넌 어느 별에서 왔니 1회)
→ 나는 그 순간이 영원할 줄로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인지동사 ‘알다’, ‘모르다’는 어휘 자체적 의미로 화자의 인지, 인식을 표현하는 동사로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동사가 구성 속에서 동

사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고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으로 굳어졌다. 이러한 표현이 나타내는 인식양태는 일반적으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범주 또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표시하는 범주로 정의 되어져왔는데 선행연구에서 반사실성을 표현한다고 언급된 ‘관형형+ 줄(로) 알다’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관형형+ 줄(로) 알다’는 화자의 인식 상태인 ‘이미 앎’을 나타내고 동시에 ‘뒤늦은 깨달음’도 표상하는 언어에 반영된 인식론적 장치이다.

4. 결론

본고는 ‘관형형+ 줄(을/로) 알다/모르다’ 구성이 표현하는 의미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을 기술하였는데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 하려 한다. 의존 명사구 구성 ‘관형형+ 줄(을/로) 알다/모르다’는 두 가지 구성으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이고, 둘째는 ‘관형형+ 줄(로) 알다’이다. 이 두 구성은 인지동사 ‘알다’의 다의어적인 특징이 반영되어 화자의 정보 인식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지며 본고는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두 구성이 가지는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첫째, ‘관형형+ 줄(을) 알다/모르다’에서 ‘알다/모르다’는 인지동사 ‘알다’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N을/를 알다’를 취하며 목적어인 N은 ‘정보’와 ‘지식’에 대한 화자의 인지를 나타낸다. 이 구성에서는 정보의 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정보의 인지가 있으면 ‘알다’로 정보의 인지가 없으면 ‘모르다’로 표현한다. 또한 ‘모르다’가 ‘알다’의 어휘 부정어로 쓰일 수 있고 구성 안에서 조사 ‘을’은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화자의 인지의 방식을 표상한다. 아울러 이 구성은 ‘모르다’의 화자 중심 양태용언 1류의 의미도 함께 표현할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관형형+ 줄(로) 알다’가 표현하는 반사실성은 조사 ‘로’의 부분적, 단면적인 인식의 관형절 내용과 과거시제의 조합으로 발생한 함축의 의미일 뿐이며 이러한 함축의 의미가 이 구성

의 중심 의미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하였다. 이 구성의 진정한 의미는 화자의 인식양태 ‘뒤늦은 깨달음’의 속성을 표현 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관형형+줄(로) 알다’ 구성은 통사 구성이라기보다는 인식양태를 표현하는 우언적 구성으로서 화자의 인식 상태인 ‘이미 앎’을 나타내는 동시에 ‘뒤늦은 깨달음’도 표상하는 언어에 반영된 인식론적 장치이다.

[Abstract]

Cognitive Modality: Syntax and Semantics of 'jul' construction

Do, Mihya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aning of bound noun 'jul construction'. Generally we associate 'jul' with 'aldal/moreuda', so we suggest the constructions of 'jul' as follows: (i) 'Adnominal clause+jul(eul) aldal/moreuda', which means the information is obtained(or not) newly by the speaker, (ii) 'Adnominal clause+jul(ro) aldal', which means the information has already been possessed by the speaker.

Firstly, the 'Adnominal clause+jul(eul) aldal/moreuda' construct is used to express 'recognition of facts'. Besides that 'moreuda' shows a predicate of modality, a speaker-centered modality and emphasis of adnominal clause. Moreover in this clause, 'aldal/moreuda' contains their own lexical meaning, which means they are common bound noun construction.

Secondly, In previous studies, the 'Adnominal clause+jul(ro) aldal' is characterized 'irreality' or 'non-actualization'. However it can be changed in certain conditions. 'Adnominal clause+jul(ro) aldal' shows cognitive modality for 'belated realization'. Although the 'Adnominal clause+jul(eul) aldal/moreuda' shows common bound noun construction, the 'Adnominal clause+jul(ro) aldal' shows cognitive modality.

Key words : Adnominal clause, bound noun 'jul', aldal/moreuda, eul, ro, information, cognitive modality, belated realization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지은,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1998.
문숙영, 『한국어의 시제 범주』, 태학사, 2009.
박재연, 『한국어 어미의 의미』, 집문당, 2019.
양정석, 『국어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박이정, 1995.
우형식, 『국어 동사 구문의 분석』, 태학사, 1998.
이재성, 『한국어의 시제와 상』, 국학자료원, 2001.
장경희,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1985.

■ 논문

- 김진희·김선혜, 「의존 명사 ‘줄’ 구성의 의미기능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3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 교육원 한국어학당, 97-123, 2012.
김정아, 「다의어 ‘알다’의 의미와 한국어 교육 방안」, 『어문총론』 89호, 한국문학언어학회, 317-348, 2021.
도재학, 「반사실성의 개념과 특성, 단일절에서의 언어화에 대하여」, 『형태론』21권 2호, 182-209, 2019.
문병열, 「한국어의 보문 구성 양태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박승윤, 「형식명사 술어 구문의 문법화 양상」, 『담화와인지』5-2, 담화인지 언어학회, 41-56, 1998.
박재연,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박재연,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기능과 그 문법 범주」, 『한국어학』43, 한국어학회, 151-177, 2008.
정연주, 「의존명사 ‘줄’의 기능 특화 양상」, 『영주어문』 34, 영주어문학회, 65-94, 2016.
정혜선, 「중세국어 의존명사 ‘줄’ 구성 연구」, 『한국어학』80, 한국어학회, 235-257, 2018.
안정아, 「의존 명사 ‘수’와 ‘줄’의 의미 연구」, 『어문논집』52, 민족어문학회, 121-145, 2005.
오경숙, 「‘줄 알다’, ‘줄 모르다’와 사실 인식 표현」, 『한국어의미학』30, 한국어의미학회, 143-161, 2009.
오민석, 「현대국어 의존 명사 ‘줄’의 통사와 의미」, 『어문연구』43-1, 한국어문회,

- 89-120, 2015.
- 우형식, 「의존명사 것, 바, 줄의 분포와 의미기능」, 『한어문교육』3,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5-38, 1995.
- 이은섭, 「삼- 구문의 ‘로’ 부사어의 문법과 의미」, 『비교문화연구』 12-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57-182, 2008년.
- 이은섭, 「여기- 구문에 대하여」, 『국어학』53, 국어학회, 141-176, 2008.
- 이은섭, 「-고 싶다’ 구문의 분용언어에 직접 선행하는 ‘이/가’ 조사구의 주어성 검증」, 『어문학』134, 한국어문학회, 21-50, 2016.
- 이주행, 「不完全名詞에 대한 研究: ‘수’와 ‘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44, 한국어교육학회, 265-275, 1983.
- 이지영, 「‘못’과 결합하는 형용사의 의미특성」,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163-192, 2004.
- 이지영, 「인식의 관점에서 본 ‘알-’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어문연구』 33-4, 한국어문회, 109-134, 2005.
- 이지영, 「‘줄’ 구성의 통사적 분포 변화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182, 국어국문학회, 39-77, 2018.
- 이정훈, 「공기 관계에 대한 계량적 연구: 의존명사 ‘줄’을 중심으로」, 『언어와정보사회』 7, 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45-66, 2006.
- 임동훈, 「국어 양태 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어미학』26, 한국어어미학회, 211-249, 2003.
- 최정도, 「국어 의존명사 구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홍사만, 「중세,근대국어 의존명사 {줄}의 분포와 의미」, 『영남학』3,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63-304, 2003a.
- 황순희, 「인지동사의 의미분류와 어휘의미망 표상」, 『언어연구』26-2, 한국현대언어학회, 373-406, 2012.